

# 도우 “실제 D.P 출신...형사물 자신있죠”

티빙 ‘비의도적 연애담’으로 주목  
 日 OTT 라쿠텐 1위...해외 입소문



배우 도우(27·한도우)는 티빙 드라마 ‘비의도적 연애담’을 통해 BL(Boys Love)물 편견을 깬다. 원작인 동명 만화를 찾아보기 전 ‘장르적 특성 때문에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라는 편견이 없지 않았다. 첫 BL물 도전인데다가 ‘우리 갑순이’(2016~2017) 이후 6년 여만의 복귀라서 부담감이 컸지만, “동희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오히려 “캐릭터를 이해한 뒤 부담감이 사라졌다”며 “일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 매력을 몇 스톱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 드라마는 도우가 ‘윤태준’(차서원)과 대기업 총무과 직원 ‘지원영’(공찬)이 거짓말로 관계를 시작, 진짜 사랑을 느끼는 이야기다. 도우는 ‘김동희’로 분해 소꿉친구 ‘고호태’(원태민)와 로맨스를 그렸다. BL물이지만 사랑 외에 감정도 녹여 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만화책을 사서 여러 번 봤고, 캐릭터와 공통점을 찾았다. “오디션에 보러 갔을 때 ‘동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스타일링 등을 동희처럼 준비했다”며 “감독님이 생각한 동희 모습과 일치해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돌아왔다.

“여성 시청자를 의식하지 않았지만, 원작 팬들을 실망 시키고 싶지 않았다. 만화를 실사화 해 동희를 연기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았으면 했다. 팬들이 ‘도우는 동희를 해야 할 운명이었다’ ‘살아있는 김동희다’ 등 호평을 해줘서 감사하다. 코멘터리 라이브 방송을 총 4번 했는데, 사실 배우들이 제작사에 먼저 요청했다. 팬들과 소통하며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 새로웠다. 촬영 전부터 함께 모여서 연습해 자연스럽게 케미스트리가 생겼고, 또래다보니 더욱 돈독해졌다.”

BL물 열풍 속 비의도적 연애담도 성과를 냈다. 일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라쿠텐에서 1위를 하는 등 해외에서 입소문을 탔다. 도우는 “내가 한 작품 중 제일 많이 돌려봤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 동안 아버지가 ‘사인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몇 번이나 전화가 왔다”며 좋아라했다. 요즘 길을 지나가면 알아보고 전전화, 카페 등에서도 사인·사진 요청을 해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왓차 ‘시멘틱에어’(2022) 등과 달리 비의도적 연애담은 정통 로맨스물 매력을 강조했다. “클래식한 로맨스 드라마 느낌”이라며 “자극적이지 않고 동화 같다. 서서히 감정이 쌓이면서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느냐.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도우는 어렸을 때부터 호태를 좋아했지만 쉽사리 고백하지 못했다. 성소수자의 아픔을 알기에 호태를 밀어내곤 했다. “동희는 고등학교 때 성 정체성을 깨닫고 커밍아웃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다. 성소수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 호태가 힘들지 않았으면 했다”며 “또 호태 엄마가 동희를 아들처럼 돌봐주지 않았느냐.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힘들었고, 마음을 열기까지 거의 10년 정도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회에서 호태가 동희를 뒤에서 껴안지 않느냐. 그때 동희가 호태가 한 말을 인용해 ‘이 정도는 하게 해주’라고 했다. 서

로 다른 감정으로 한 대사가 신선했다. 동희가 호태에게 마음을 여는 신이었는데, 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짧은 대사 안에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했다. 호태, 동희 이야기가 많이 담기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더라. 서원 형 전역까지 시간이 있으니 ‘호태·동희 외전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웃음)”

도우는 2014년 드라마 ‘일리있는 사람’으로 데뷔했다. ‘여자를 울려’(2015) ‘무림학교’(2016), 우리 갑순이까지 연달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군입대했고, 전역 후 현빈(41)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에 새 등지를 틀었다. “복학해 연출 공부를 했고, 단편 작업도 많이 했다. 2016년 이후 2023년에 작품이 나온 것 같지만, 연기를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다”며 “비의도적 연애담은 선물과 같다. BL물을 통해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알게 됐고, 배우로서 한층 성장한 느낌이다. 모니터링 하면서 아쉬운 점도 보였지만, 앞으로 연기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대 갔다 오면 절 든다고 하지 않느냐. 미루고 싶지 않고 빨리 갔다오고 싶었다. 지나고 보니 군대 있는 시간이 좋았다”며 “나 때는 21개월 복무해 서원 형에게 ‘1년 6개월 금방 간다’고 했다. 난 라디오 ‘배철수 음악캠프’를 들으면서 운동했는데, 지금은 군인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운동해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만큼 군대가 좋아져 탈영하는 사람들도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우는 군이탈자 체포조(D.P.)로 복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2021)를 보며 많이 공감했을 터다. “드라마니까 각색한 부분도 많았지만, 디피 출신이어서 더 몰입해서 봤다. ‘한호열’(구교환) 역 잘 할 것 같다고? 실제로 군생활 때 한호열처럼 장난도 많이 쳤다. 머리를 기르고 사복 입고 나가서 형사처럼 잠복하고 탈영병 3~4명을 잡았다. 이 드라마 나오기 전에는 디피 출신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참 설명했다. 형사물 등 장르물도 자신있다. 나중에 형사·군대물 등을 찍으면 군생활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모텔로는 박정민(36)을 꼽았다. 일리있는 사랑에 함께 출연했다며 “박정민 선배는 연기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있다. 나도 그런 연기를 하고 싶다. 여유가 생기면 연출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처음에 비의도적 연애담은 장르적 편견을 가졌지만, 작품을 하면서 그 편견이 다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나도 배우로서 편견을 깨부수고 싶다. 앞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도전,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짓고 싶다”고 했다.

## 강호동 “과거 ‘강심장’ 뛰어 넘겠다”

개그맨 강호동이 12년 만에 ‘강심장’으로 돌아오는 소감을 밝혔다.

강호동은 8일 공개한 SBS TV ‘강심장리그’ 3차 티저 영상에서 “(과거 영상을 보니) 재미있으면서도 마냥 즐겁진 않다. 우리는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과거의 강심장을 뛰어 넘어야 한다”며 “이야기를 가진 출연자들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벌써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반면 이승기는 “난 되게 편하다”며 “호동이 형과 있을 때는 그 시절로 돌아가 플레이어로

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호동은 “이제 이승기는 강심장리그를 이끌어 갈 간판스타”라며 “난 이제 진행을 승기 쪽으로 넘기고 플레이어로써 활약할 것”이라고 웃었다.

강심장리그는 강심장(2009~2013) 콘셉트를 이어 받았다. 강심장은 SBS 대표 예능물로 최고시청률 20%를 넘나들었다. 강호동과 이승기는 2011년까지 진행했으며, 이후 개그맨 신동엽과 배우 이동욱이 이어 받았다. 강심장리그는 강호동·이승기 팀으로 나눠 입담 대결을 펼



철 예정이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뮤지컬배우 김호영, 그룹 ‘샬’ 출신 이지혜, 이종혁투기선수 김동현, 개그우먼 엄지윤, ‘마래소년’ 손동표가 패널로 합류했다. 23일 오후 10시 20분 첫 방송.

## 마블의 민심 회복...‘가오갤3’ 어린이날 연휴 접수

예매 순위 1위...무난히 200만 돌파 예상

마블 새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이하 ‘가오갤3’)가 어린이날 연휴 14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를 장악했다.

현재 추세라면 무난히 2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오갤3’는 4~7일 146만6389명이 봐 개봉 첫 주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163만956명이다. 이 기간 ‘가오갤3’ 매출액 점유율(총 매

출 대비 특정 영화 매출 비중)은 47.3%였다. 이 작품은 2014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017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에 이은 ‘가오갤’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우주를 지키는 과학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크리스 프랫, 조이 살다나, 캐런 길란, 톰 콜레멘티프, 데이브 바티스타, 윌 풀러 등이 출연했다. 빈 디젤과 브래들리 쿠퍼는 목소리 연기를 했다. 연출과 각본은 전작 두 편에 이어 다시 한 번 제임

스 건 감독이 맡았다. ‘가오갤3’는 이 시리즈 마지막 영화이기도 하다.

현재 흥행세라면 ‘가오갤3’는 무난히 200만 관객 고지를 밟을 거로 전망된다. 8일 오전 7시 현재 ‘가오갤3’ 예매량은 8만9465명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17일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같은 기간 78만 4150명을 추가하며 총 180만2497명을 기록, 누적 200만명을 눈앞에 뒀다.

## ‘5월의 신부’ 이다해...세븐과 결혼식 현장 공개

가수 세븐(39·최동욱)과 배우 이다해(39·변다혜)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이다해의 소속사인 케이스타글로비엔티는 7일 세븐·이다해 커플의 결혼식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다해는 활짝 웃으며 하객들의 축하에 보답했고, 세븐은 든든한 모습으로 ‘5월의 신부’ 이다해의 곁을 지켰다.

세븐·이다해의 오작교로 알려진 최성준 역시 전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두 분 너무 축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이 버진 로드에서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재했다.

세븐·이다해는 6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했다. 소셜 미디어 등에 올라온 목격담 등에 따르면 세븐은 합창단을 추는 등 유쾌하게 임했다. 수줍은 한 이다해를 적극 이끌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예식엔 세븐이 몸 담았던 YG엔터테인먼트 출신 가수들이 하객으로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빅뱅 지드래곤·대성, 투애니원 산다라 박·CL·공민지 등이다. 백종원·소유진 부부, 슈퍼주니어 이복·김희철·은혁·규현, 가수 김재



중 등도 두 사람을 축하했다. 결혼식 사회는 개그맨 김준호와 조세호가 맡았다. 그룹 빅뱅 태양을 비롯 거미, 바다 등 평소 세븐과 절친한 가수들이 축하를 불렀다. 홍경민, 소유진이 축사를 맡았다. 앞서 세븐·이다해는 지난 3월 결혼 소식을 전하며 “저희가 오래된 연인에서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교제해온 오래된 연인이다. 앞서 이다해는 세븐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더 예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 할게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 ‘에스파’ 미니 3집, 선주문 180만장



대세 걸그룹 ‘에스파(aespa)’가 세 번째 미니앨범 ‘마이 월드(MY WORLD)’로 선주문량 180만장을 돌파하며 자체 최고 성적을 거뒀다. 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가 이날 오후 6시 발매하는 ‘마이 월드’는 이날 기준 이 같은 선주문 수량을 기록했다.

전작인 두 번째 미니앨범 ‘걸스(Girls)’ 선주문량 161만장을 넘어서며 컴백 전부터 ‘2연속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예고했다.

180만장은 역대 K팝 걸그룹 선주문 수량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기도 하다. K팝 걸그룹

K팝 걸그룹 역대 2위

최고 선주문 수량은 작년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본 핑크’로 기록한 200만장이다. ‘트와이스’가 지난 3월 발매한 미니 12집 ‘레디 투 비’ 선주문량은 170만장이었다. 4세대 선봉인 에스파가 3세대 K팝 간판 걸그룹들인 ‘블랙핑크’ ‘트와이스’와 선주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에스파의 이번 ‘마이 월드’엔 타이틀곡 ‘스파이시’를 비롯 선공개곡 ‘월드 투 마이 월드’ 등 총 6곡이 실린다.

특히 ‘스파이시’는 강렬한 신스 베이스 사운드와 역동적인 비트가 돋보이는 댄스곡이다. 가사에는 자유분방한 에스파의 매력을 담았다. 그간 에스파가 들려줬던 묵직한 사운드와 달리 밝고 발랄함을 예고했다.

SM은 “‘스파이시’ 뮤직비디오 역시 하이틴 영화를 보는 듯한 영상미와 더불어 ‘광아(KWANGYA)’(SM 가상 세계관)에서 ‘리얼 월드(REAL WORLD)’로 돌아온 에스파에게 일어나는 ‘이상현상’이라는 세계관 스토리가 더해진다”고 소개했다.

또한 에스파는 음원 공개에 앞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유튜브 유튜브 및 틱톡 에스파 채널, 아이돌플러스를 통해 컴백 기념 생방송을 진행한다. 앨범에 수록된 6곡을 소개하는 건 물론, 앨범 언박싱, 향후 활동 계획 스포일러 등 다양한 코너로 팬들과 소통한다.

## ‘베스티언즈’ OST 앨범 이달 25일 발매

BTS ‘더 플래닛’ 수록

애니메이션 ‘베스티언즈(BASTIONS)’가 OST 앨범을 선보인다.

8일 제작사 티모스미디어에 따르면 ‘베스티언즈’가 오는 25일 OST 앨범 발매를 앞두고 이날 오후 2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반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앨범에는 ‘베스티언즈’의 OST 타이틀곡이자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더 플래닛(THE PLANET)’을 비롯해 삽입곡들이 수록될 예정이다.

‘베스티언즈’는 첫 방송을 앞두고 오는 12일 오후 1시 ‘더 플래닛’의 음원 정식 발매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에는 ‘베스티언즈’ 예고편과 함께 ‘더 플래닛’의 댄스 버전 뮤직비디오 티저, 30초 버전 뮤직비디오 티저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베스티언즈’는 인기 경쟁이 치열한 히어로 세계에 등장한 신인 베스티언즈가 환경 파괴의 주범인 빌런의 정체를 밝혀 위기의 지구를 구하고 진정한 히어로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그린 3D 액션 히어로 애니메이션이다.

전 세계적 화두인 ‘환경 오염’을 키워드로 작품 속 히어로 세계관에 녹여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재미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뿐



만 아니라 국내 최초 K팝과 콜라보를 성사하며 강렬한 차별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베스티언즈’의 타이틀곡 ‘더 플래닛’은 오는 12일 오후 1시 발매되며, OST 앨범은 오는 25일 발매된다. 오는 14일 오전 7시30분 SBS 첫 방송. 뉴스스